

“화합으로 전북 대도약 도민 염원 실현하자”

6·3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화합교례회 개최... 당선인들에 지역 발전·민생 챙기기 당부

전북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 발전을 위한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전북애향본부가 주관하고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등 4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화합교례회가 지난 16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선거 당선인과 출마자를 비롯해 기관·사회단체장,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김제) 회장단과 기업인, 문화예술계 및 언론계 인사, 전북애향본부 임원과 시·군본부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전북의 주요 현안과 지역 의제를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취지로 마련됐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 김택수 전북도민일보사 회장 등 공동 주최 기관 대표들은 이일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천호성 교육감 당선인, 박지원 국



전북애향본부가 주관하고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등 4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화합교례회가 지난 16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해 시장·군수 당선인과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당선인들에게 당선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들은 “도민들이 보내준 성원과 기대에 부응해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전북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선거는 끝났고 이제는 전북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다시 한 방향을 바라봐야 할 때”라며 “당선

인과 출마자, 기관·단체, 경제계가 중 지성성(衆志成城)의 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전북은 반드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 주최 기관들은 전북의 핵심 현안인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제3 금융중심지 지정, RE100 산업단지 및 피지컬 AI 실증단지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축사를 통해 화합과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일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과 천호성 교육감 당선인, 박지원 국회의원 당선인, 조지훈 시장·군수 당선인 대표, 이병도 전북자치도의원 당선인 대표 등이 당선인 인사를 전했다.

이어 이광형 KAIST 총장이 ‘인공지능 시대, 어떻게 대응해 나아갈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 총장은 강연에서 피지컬 AI 수도 전북의 가능성과 AI 인재 양성 방안, 전북의 AX(인공지능 전환) 산업 전략 등을 제시하며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찬에서는 이상순 전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박영길 재경전북도민회 중앙연합회 회장이 건배 제의를 맡아 전북 발전과 도민 화합을 기원했다.

참석자들은 전북 대도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과 경제계, 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도민들의 염원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뜻을 모았다. /오상근 기자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박춘원 전북은행장, 동참...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노력”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박춘원 은행장이 청소년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공익 릴레이 활동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범죄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참여자가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메시지를 전달한 뒤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춘원 은행장은 핀테크 기업 핀다의 이해민 대표 지목을 받아 이번 릴레이에 참여했다.

박 은행장은 “청소년 불법도박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미래를 위협하고 가정과 사회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금융권을 비롯한 지역사회 모



두가 경각심을 갖고 청소년 보호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건강한 금융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춘원 은행장은 캠페인의 취지를 이어갈 다음 참여자로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를 추천하며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확산을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지원 결실... 팜조아, 미국 수출 본격화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의 맞춤형 기업 지원이 결실을 맺으며 국내 식품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됐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원해 온 익산 소재 식품기업 (주)팜조아(대표 황은경)가 미국 파트너사 ESUFARM(ESU)과 함께 한국산 냉동 큐브마늘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전북테크노파크가 선도



기업 성장기 성장로드맵에 따라 추진해 온 체계적인 지원사업의 결과로 평가된다. 전북TP는 선도기업 자율프로젝트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박람회 참가, 해외 시장 관측행사, 미

국 코스트코 매출 확대를 위한 POP 광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팜조아의 해외시장 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도왔다.

이번에 미국 수출길에 오른 제품은 팜조아가 자체 개발한 IQF(개별급속냉동) 특허 기술을 적용한 냉동 큐브마늘이다. 해당 공정은 전북TP의 ‘선도기반 공정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인 대표적인 성과 사례로 꼽힌다.

제품은 미국 전역에 대형 주류 유통채널을 보유한 수입·유통기업 ESU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 22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국민연금공단이 고객 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국민연금공단 전주유무주지사(지사장 설명진)는 오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전국 22개 지사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실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휴무 전후 시간대에 민원 업무를 집중 처리하는 제도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도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민원 응대 집중도 향상 여부와 직원 근무환경 개선 효과, 제도 도입의 적정성, 고객 불편 최소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 관련 각종 신고와 신청 업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곁에 국민연금’, 정부24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16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모두의 창업’ 1기 출범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전북 ‘모두의 창업’ 1기 출범

전북중기청, 308명 창업 도전자 본격 육성

전북지역 예비 창업자들의 꿈을 지원하려는 전국 단위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 ‘모두의 창업’이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삼만)은 지난 16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모두의 창업’ 1기 출범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지역예선 통과자들의 창업 프로그램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선정자와 책임멘토, 허브기관 및 운영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출범식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된 지역 출범식의 하나로 마

련됐다. 행사에서는 책임멘토의 심사 총평과 선정자들의 포부 발표, 선배 창업자들의 응원 메시지가 이어지며 예비 창업자들의 도전을 격려했다.

이어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허브기관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운영기관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아이디어파트너스, 유니 등이 참여해 단계별 지원 방향과 보육 계획을 설명했다.

또 운영기관별 상담 부스와 멘토링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창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중진공, 감사 전문성·청렴문화 확산 협약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감사 역량 제고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허정환 상임감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흥범 상임감사를 비롯해 양 기관 감사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감사 노하우와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감사 시스템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체 감사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차·합



동감사 운영 △감사 기법 및 정보, 우수사례 공유 △디지털·AI(인공지능) 기반 감사역량 강화 △반부패·청렴 정책 협력 등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